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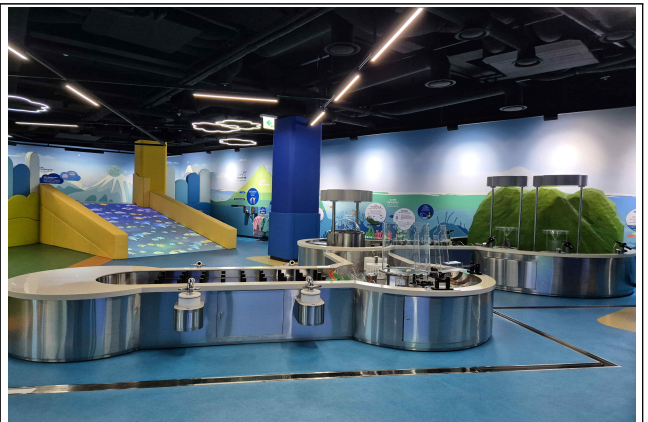
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개관 - 과학으로 바다날씨를 보는 체험형 과학관 -

-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문을 연다. 이는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*로 설립된 기상과학관이며 해양기상을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의 과학관이다.
 - * 기상청 운영 국립기상과학관(6소): 대구, 전북, 밀양, 충주, 서해안, 여수
 -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서장원)은 시범운영을 마치고, 12월 21일(토)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개관한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지상 3층, 연면적 5,376㎡ 규모로 신축되었으며, 기상과학 전문과학관이다.
 - ‘해양기상’이라는 차별화된 주제를 선정해 바다에서 시작되는 위험 기상인 ‘태풍’, ‘풍랑’, ‘해일’에 대한 이해부터 해양과 기후변화의 상관성까지 기상기후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다양한 전시물로 구성되었다.
 - ▲ 1관은 날씨의 기본원리를 신체놀이로 체험하는 날씨놀이체험관 ▲ 2관은 ‘태풍’, ‘풍랑’, ‘해일’을 심층 체험하는 해양기상현상관 ▲ 3관은 바다 날씨를 관측하는 원리와 장비를 체험하는 해양기상관측관 ▲ 4관은 해양과 기후의 상호연관성과 기후감시요소, 미래 기후변화예측을 이해하는 해양기후 변화관 ▲ 5관은 빗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힐링하는 미디어아트 공간
 - 또한, 3층에는 완전한 구(球) 형태의 360도 스크린 안에서 최상의 몰입감을 경험하게 될 특수영상관도 마련하였다.
- 5개의 상설관 외에도 공연,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.

- 과학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은 지역민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될 것이며, 2개의 과학체험교육실을 갖추고 있어 학교 밖 과학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서장원 광주지방기상청장은 “해양기상과학관” 이 개관함에 따라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바다날씨를 보고, 배우고, 체험하는 과학관이 생겨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.” 면서
 - “바다가 기상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해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여수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같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가도록 하겠다.” 고 전했다.



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(전경)



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(내부)

담당 부서	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김연희 (062-720-0660)
		담당자	주무관	김길한 (062-720-0665)

※ 광주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